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요 21:01-03절)

사람들의 모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7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막14:27-28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천사들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향하여 마28:6-7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고 다시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자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배와 그물을 잡았지만 이들의 귀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는 말씀이 귀에 쟁쟁했습니다. 이들은 이곳 갈릴리에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리라는 확실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 자신의 직업, 일터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최선의 준비, 최선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터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하는 우리의 일들이 보잘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는 일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이 세상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부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병원에서, 공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상점에서,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자 기다리시는 여러분의 되기를 바랍니다.